

CEO

REPORT ON CURRENT ISSUE

CER- 006

2006. 1.

한미 FTA 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 |

< 요약 >

1. 한미 FTA의 필요성

-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미간 통상마찰 완화
 -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해소될 경우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동북아지역 안보유지
 -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양국간 외교·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한미 FTA에 대한 산업계 입장

- 미 업계는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
 - 2005년 2월 전미제조자협회(NAM)은 미 행정부에 권고한 FTA 우선 검토 대상국의 하나로 한국을 선정

- * FTA 우선 검토대상국(5개국) :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한국
- 국내 업계는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미국의 對韓 투자 확대 등의 측면에서 한미 FTA 추진을 지지

3. 한미 FTA 쟁점사항

(1) 4대 통상현안

□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

- 미국측은 2004년 6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총상영일의 40%)의 절반 수준인 73일(20%) 이하로 축소 요청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하여 한국은 미국산 수입금지 조치 단행
- 미국측은 일본의 수입재개 결정과 같이 한국측도 조속한 시일내 수입재개를 요청해왔으며, 지난 1월 13일(금) 양국정부간 쇠고기협상을 타결함.

□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문제

- 환경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보다 44~74%까지 강화키로 함(단, 1만대 이하 소규모 판매자는 2006년 말까지 유예)
- 미국측은 환경부의 신규기준이 미국산 차량의 한국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미국산 차량 40% 이상 감소 주장)

□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문제

- 미국측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투명성 문제 제기

(2) 기타 쟁점사항

□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

- 미국측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의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

- 미국측은 개방수준이 낮은 법률,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문제

- 우리나라 제조업계가 미국시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 등과 같은 수입제한조치인데 이러한 구제조치는 미국측의 입장에서는 각종 국제무역협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이어서 쟁점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

4. 향후 대응과제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
 - 미국은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FTA 협상에 소극적이므로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음

- 스크린쿼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
 -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미 FTA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영화계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
 - 안정성 검증 등 국민 건강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즉시 미 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 부문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 필요
 - 법률, 의료, 교육 등 취약한 국내 서비스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한미 FTA를 우리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

- 중일에 앞서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선점자 우위 확보
 -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의 미확립, 일본의 자국제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북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의 FTA를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1. 미국의 FTA 현황

(1) 미국의 최근 FTA 추진동향

-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인 FTA 추진
 - 취임 직후인 2001년 3월 발표한 ‘무역정책 아젠다(Trade Policy Agenda)’에서 FTA 중점추진을 천명
 - 2002년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¹⁾의 의회 승인 이후 FTA 본격추진
 - 부시 1기 정부하에서 칠레, 호주 등 10개국과 FTA 성사
 - * 이스라엘과의 첫 FTA(1985) 체결이후 2000년까지 15년 동안 체결한 국가는 4개국(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에 불과
- 부시 2기 정부에서도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중
 - 미주 대륙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범미주 자유무역지대(FTAA)²⁾에 치중하는 한편, 지역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유럽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들과 FTA 추진

1) 무역촉진권한(TPA)은 과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의회가 미헌법상 의회 권한인 무역협상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한 것(2002. 7~2007. 6)으로 의회는 내용에 대한 가부 결정권한만을 갖고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함. 이는 행정부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의 이행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밝기 위한 것임

2) 범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Americas)는 북미 알래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를 하나의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 12월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정상들이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FTAA에 대한 정상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005년까지 협정체결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

미국의 FTA 체결현황

1985. 8. 19	(Free Trade Agreement)	- (ATAP : 2001 12)
1989. 1. 1	(CUSFTA)	- NAFTA
1994. 1. 1	(NAFTA)	- , ,
2001. 12. 17		- , , , ,
2004. 1. 1		- , , , , ,
2004. 1. 1	가	- , , , , ,
2005. 1. 1		- 2004 5 - FTA FTA
(2004. 5. 28)	(CAFTA)	- 5 (, , , , ,) - CAFTA DR-CAFTA (2005. 7)
(2004. 6. 15)		- 2002 4 23 - 2004 3 - 2006 1
(2004. 9. 14)		- 2004 5 - FTA 가
(2005. 10. 3)		- FTA , 100% 87%가
	(FTAA)	- 1994 12 34 FTAA - 2005
	(SACU)	- 2003 6 - , , , , (AGOA)
		- 2004 4
	가 (ANCOM)	- 2004 6 - , , , ,
		- 2004 7 - 2005 9 5
		- 2005 3
	(MEFTA)	- 2003 4 (METI) , 2013
		- , , , , , ASEAN, , ,

(2) 미국의 FTA 정책 특징

-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정책 추진
 - 차별적인 대우를 허용하는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상보다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s)를 보장하는 다자간 협상을 선호하였으나 WTO의 DD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FTA 추진
 -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양자간, 지역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 무역자유화를 촉발시키고, 궁극적으로 WTO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정치적, 전략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FTA 정책 추구
 -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 종합적인 대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추진
 - 개방 및 개혁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 실적이 높은 국가와 FTA를 맺음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확산(칠레, 호주 등)
 -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노선을 지지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미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동맹관계를 강화(이스라엘, 요르단 등)
 -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 국가와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호주 등)

○ FTA 협상을 다자간 무역협정의 선례로 활용

- 무역의 규범을 FTA 협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자간 규범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미국의 FTA 추진국가와 고려기준

				가	
		×		×	×
		×			×
				×	
			×	×	

주 : ◎ ; 협정체결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

○ ; 협정체결시 고려사항

× ; 협정체결시 주요 고려대상이 아닌 사항

자료 : 전영재, '미국의 FTA 전략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 한미 FTA의 필요성 및 추진동향

(1) 한미 FTA의 필요성

○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의 수출대상국

○ 한미간 통상마찰 완화

-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한미 FTA를 통해 해소될 경우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FTA 미체결로 인한 기회비용 최소화

- 미국은 미주지역 국가들과 FTAA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과 FTA 추진
-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의 기회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 FTA 필요성 고조

○ 농업부문 구조조정 및 서비스부문 경쟁력 강화

- 미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국내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가속화 가능
-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가능

○ 동북아지역 안보유지

-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양국간 외교·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한미 FTA 추진동향

- 1988년 미 상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체결 타당성을 검토토록 요청
 - 이에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중 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거명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가 바람직하나 한국내 반미감정이 높아 정치적인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
- 1999년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Korea)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 추진 요청
- 1999년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Baucus 상원의원이 한국과의 FTA 추진법안을 의회에 상정
- 2001년 양국 재계는 제14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양국간 BIT 및 FTA 조기 타결 촉구
- 2004년 9월 Zeollick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농업분야 개방을 전제로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우선할 것이라고 언급
-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정부간 FTA 추진 예비협약의 진행기로 합의
- 2005년 3~5월 양국 정부간 사전 실무점검회의 3차례 개최

- 2005년 6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시 Portman USTR 대표는 FTA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주요 통상현안 사전해결의 우리측 노력을 강조
- 2005년 11월 미 USTR Portman 대표는 한국측의 통상현안 사전해결을 전제로 연내 FTA 협상 착수 가능성 언급

3. 한미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

(1) 한미 양국간 교역현황

-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준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시현

한미 양국간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수지
1990	19,360	16,942	2,418
1995	24,131	30,404	-6,272
2000	37,611	29,242	8,369
2001	31,211	22,376	8,835
2002	32,780	23,009	9,771
2003	34,219	24,814	9,405
2004	42,849	28,783	14,067

자료 : 무역협회

- 대미 수출비중이 2002년까지 20% 이상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그 비중이 17%로 감소하여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 이는 미국시장에서의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진출확대와 우리의 수출산업들이 중국, ASEAN, 멕시코 등 해외로 진출하여 미국시장에 우회수출하는데 주로 기인

- 미국시장의 수출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회수출까지 감안할 경우 미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9.52	10.71	12.09	14.62	18.11	19.60
2	20.51	21.83	20.75	20.18	17.66	16.88
3	11.04	11.88	10.97	9.32	8.91	8.55
4	6.30	6.22	6.28	6.24	7.56	7.14
5	4.42	4.66	3.88	4.08	3.63	3.88

주 : 순위는 2004년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수입면에서는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수입국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에는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의 수입국으로 전락

-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의 20% 이상에서 2004년에는 13% 미만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별 수입비중 추이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20.16	19.83	18.88	19.63	20.31	20.56
2	7.40	7.98	9.43	11.44	12.25	13.18
3	20.81	18.22	15.86	15.12	13.88	12.82
4	4.73	6.01	5.71	4.96	5.18	5.26
5	3.19	2.88	3.17	3.60	3.81	3.78

주 : 순위는 2004년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등에 이어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며, 미국의 전체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

미국의 주요 교역국(2004년)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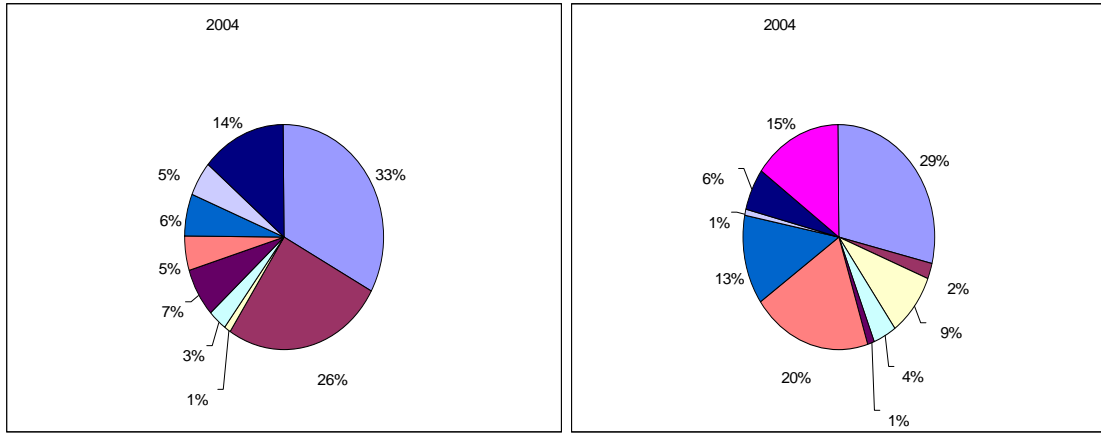
가				
	189,879.9	23.2 (1)	256,359.8	17.4 (1)
	110,835.0	13.5 (2)	155,901.5	10.6 (3)
	34,744.1	4.2 (5)	196,682.0	13.4 (2)
	54,243.1	6.6 (3)	129,805.2	8.8 (4)
	31,415.9	3.8 (6)	77,265.6	5.3 (5)
	36,000.2	4.4 (4)	46,273.8	3.1 (6)
	26,412.5	3.2 (7)	46,167.9	3.1 (7)
	21,744.4	2.7 (9)	34,623.6	2.4 (8)
	21,263.3	2.6 (10)	31,605.7	2.2 (9)

주 : 2004년 수출입 통계 기준이며, 괄호 안은 순위임

자료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http://www.bea.gov/>)

- 2004년도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33%), 자동차(26%), 기계(14%) 및 섬유(6%) 등으로 이들 품목들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29%), 화공(20%), 기계(15%) 및 농수산물(9%) 등으로 이들 품목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초과

우리나라의 대미 품목별 수출입 비중(2004년)



자료 : 무역협회

(2) 한미 양국간 투자현황

□ 미국의 對韓 투자

○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외국인 투자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

- 2004년 미국의 對韓 투자액은 47.2억 달러(신고기준)에 달하며 1962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요국별 대한 직접투자 누계액을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1%를 차지

- 미국의 對韓 투자는 1996년까지는 낮은 투자율을 보이다가 1997년 이후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

○ 산업별 對韓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57.3%, 제조업 32.7%, 농림수산업 0.2%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 차지(1962~2004년 누계기준)

- 이는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을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이며, 미국은 유통, 금융, 보험,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

□ 한국의 對美 투자

○ 미국은 한국의 제1위의 투자 대상국(누적기준)이며, 한국은 1968~2004년까지 170억 달러(대미투자금액 기준)를 미국에 투자

- 2002년 이후 對中 투자 증대(2002년, 10.1억 달러)로 중국이 한국의 해외투자 대상국 1위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대상국임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60.5%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36.8%를 차지(2004년 기준)

한·미 양국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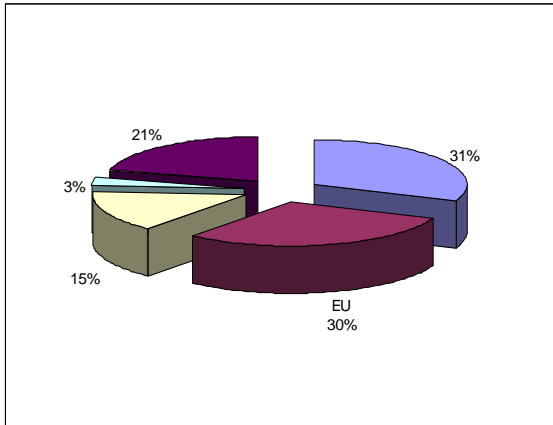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962 ~ 2004)
()	876	3,190 (264.1)	2,973 (-6.7)	3,739 (25.6)	2,916 (-22.0)	3,890 (33.1)	4,500 (15.7)	1,240 (-72.4)	4,725 (281.0)	32,260
()	1,568	736 (-53.1)	884 (20.1)	1,809 (104.6)	1,300 (-28.1)	1,837 (41.3)	1,475 (-19.7)	736 (-50.1)	1,337 (95.2)	17,012

주 :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대미투자 누계는 1968~2004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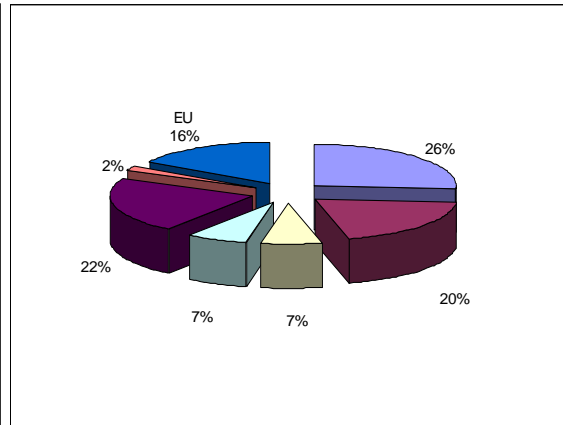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은행

주요국별 대한국
해외직접투자 누계액(1962~2004)



주 : 중국(중국+홍콩)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1968~2004)



주 :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자료 : 수출입은행

4. 한미 FTA의 예상효과 및 산업계 입장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예상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율이 대미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후생수준 및 GDP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1986)	- 18.25% 가 , 12.93% 가 - 가 10
(1989)	- : , , , , - : , , , (, ,) - :
(1998)	- GDP가 0.36%, 215 -
(1999)	- 1.73%, 1.47% 가 -
Choi-Schott (IIE, 2001)	- 109 , 89 - 30.3%, 49.4% 가
USITC(2001)	- GDP가 0.69%(39) , 0.23%(196) - 0.8%(70) , 1.0%(130) 가 - 21%(100) , 54%(190) -) 가 , 90
Dean Dorosa-John Gilbert(IIE, 2004)	- 0.37%, 0.03% - 22.9% 49.6%, - 43.2% 23.4% 가
(KIEP, 2004)	- 352.5 ~ 462.0 가 - 38 ~ 96 (14 ~ 35%) 가, 가 - 178 ~ 222 (28 ~ 35%) 가
(2004)	- 가 36 가 - 125,000
(2004)	- 3.6%(12.4) , 8.7%(21.7) -) 가 9.3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수송기계, 전자제품,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미국 수출증가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수송기계와 전자제품으로 각각 4.1억 달러, 4.0억 달러 내외 증가 예상

- 다음으로 섬유제품이 1.9억 달러, 화학제품이 7천만 달러 증가가 예상되어 다른 품목들에 비해 수출이 비교적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반면 수입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은 농산물, 화공, 기계, 전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
 - 농산물의 경우 10.1억 달러로 수입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체적으로 양파, 아몬드, 오렌지, 대두,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대구, 아귀, 명란, 소시지, 초콜렛, 담배 등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미 FTA의 교역확대효과

	()			()		
	(%)	가	가	(%)	가	가
	9.8	233	18	52.2	2,568	1,005
	2.0	63	1	16.8	150	19
	2.5	456	14	5.8	72	1
	3.7	318	14	6.0	865	10
	1.2	534	4	3.7	884	28
	9.9	2,838	194	9.8	370	43
가	7.1	666	32	8.9	610	47
	2.2	1,387	45	5.2	1,380	62
	4.0	1,131	71	7.0	3,397	183
	2.6	9,441	410	6.0	919	98
	1.3	5,033	18	6.1	3,821	242
	2.0	11,161	397	5.5	7,397	293
	3.2	952	20	6.4	2,381	133
		35,888	1,239(3.6%)		24,814	2,165(8.7%)

자료 : 무역협회(2004)

- 대미 수입민감품목은 대미 수입 500대 품목 중 312개 품목이며, 동 품목이 대미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
 - 주요 민감품목은 전기전자제품(HS10단위기준, 전체 312개 품목의 수입금액 중 24.7%), 농수산물 및 식품(46개 품목, 24.5%), 화학공업품(79개 품목, 20.4%), 정밀기계(37개 품목, 11.8%)등이 될 것으로 전망

(2) 한미 FTA에 대한 산업계 입장

- 미 업계는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5년 2월 전미제조자협회(NAM)은 미 행정부에 권고한 FTA 우선 검토 대상국의 하나로 한국을 선정
 - * FTA 우선 검토대상국(5개국) :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한국
 - 미 상공회의소도 한미재계회의 등을 통해 양국정부에 FTA 조속 추진을 계속 요청
 - 기타, 한국관련 이해관계 업계들은 FTA 추진을 통해 쇠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등 관련 통상현안의 해결을 기대
 - 다만 철강,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임
 - 미국 철강업계의 경우 전통적으로 對韓 철강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 미국 자동차업계는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만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이 힘들고 오히려 통상압력 수단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 국내 업계는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미국의 對韓 투자 확대 등의 측면에서 한미 FTA 추진을 지지
 - 전경련 회원사 설문조사(2004. 11) : 한미 FTA에 찬성 87%
 - 무협 회원사 설문조사(2004. 12) : 한미 FTA에 긍정적 75%

- 국내 제조업 중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은 한미 FTA를 통해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을 기대하여 한미 FTA 체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
 - 자동차의 경우 FTA가 체결되면 경쟁국인 일본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에 도움 예상
 -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금년부터 미국의 쿼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이 더 심해져 대미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어느 정도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자산업은 고급제품의 수출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FTA 체결이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약품 산업은 對美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자의 피해발생을 예상하여 한미 FTA에 반대 입장

- 이 외에 석유화학, 철강업계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수출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석유화학의 경우 범용제품은 경쟁력이 있지만 주요경쟁국인 캐나다에 비해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수출증대 등의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철강은 2004년부터 양국간 무세화를 실시하고 있어 수출입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다만 우리 철강에 대한 전세계의 수입규제중 50%가 미국에 의해 부과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입규제 발동 완화 효과 기대

한미 FTA 산업별 영향

	(%)				
	48	9	×		
	7.9	2.7			×
	6.6	1.9	○	○	
	6.1	4.3			
	6.0	1.5			
	9.7	8.6		×	×
	5.0	1.6			×
	0	0			×
	7.1	2.3			×
가	8.0	4.3			×
가	10.2	11.1			×

자료 : 무역협회(2004)

◎ 효과(피해)가 매우 크다 ○ 효과(피해)가 있다

△ 효과(피해)가 미미하다 × 효과(피해)가 거의 없다

5. 한미 FTA 쟁점사항

(1) 4대 통상현안

- 미국측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4대 통상현안이 사전에 해결(또는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

□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

- 미국측은 2004년 6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총상영일의 40%)의 절반 수준인 73일(20%) 이하로 축소 요청
 - 미국은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외국 영화산업의 국내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 2003년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수입 중단

< >

-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하여 한국은 미국산 수입금지 조치 단행
- 2005년 6월 추가 광우병 발생으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수입금지 조치
- 2004년 10월 일본은 수입재개에 합의하고(20개월령 이하), 현재 수입조건 개정 작업중
- 2005년 10월, 태국은 수입금지 조치 해제

- 미국측은 일본의 수입재개 결정과 같이 한국측도 조속한 시일내 수입재개를 요청해왔으며, 지난 1월 13일(금) 양국정부간 쇠고기협상을 타결함.

* 미 쇠고기 수출(2003년 39억 달러)중 한국(8억 달러), 일본, 대만이 60%(총 23억 달러)를 차지

□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문제

- 환경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보다 44~74%까지 강화키로 함(단, 1만대 이하 소규모 판매자는 2006년 말까지 유예)
- 미국측은 환경부의 신규기준이 미국산 차량의 한국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미국산 차량 40% 이상 감소 주장)
 - 미국측은 미 연방기준 인정과 소규모 판매자에 대해 2008년말까지 추가 유예 요청

□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문제

- 미국측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투명성 문제 제기
 - 혁신적 신약인정 평가기준 불확실, appeal 절차 부재 등 약가 산정방식이 혁신신약에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

(2) 기타 쟁점사항

□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

- 미국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의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입장이 단호하고, 미국의 농산물 생산업체 또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양국간 FTA 추진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어려운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
- 국내 농업계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쇠고기, 감자, 오렌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생산업체의 피해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 FTA 체결에 반대입장
 - 주요 피해 예상품목 : 쇠고기, 감자, 오렌지, 식용 대두, 식용 옥수수, 사과 등

□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

- 미국측은 개방수준이 낮은 법률,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노동생산성 등 경쟁력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
 - 서비스산업 비중('02) : 고소득 OECD 국가평균 71%, 한국 55%
 -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01) : 미국=228, 일본=200, 한국=100

□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문제

- 우리나라 제조업계가 미국시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 등과 같은 수입제한조치임
 - 반덤핑 판정과 그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 등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조치의 조사기간 동안에도 기업의 수출활동을 크게 위축시킴
 - 1998년 이후 반덤핑제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의 덤핑 마진 판정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고 있는 추세

6. 향후 대응과제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

- 미국은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FTA 협상에 소극적이므로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음
 - 미국은 무역촉진권한(TPA) 기간중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와 FTA를 우선 체결하게 된다면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불이익 예상
 - 미국의 TPA 소멸시점이 2007년 6월이고, 통상 FTA 협상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조속히 추진 필요

-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대륙에 FTAA가 출범하게 되면 한국의 주요시장인 북미시장을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 내어주는 상황이 될 가능성
- 한미 FTA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일관된 정책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함
- 한미 FTA는 우리가 추진중인 다른 FTA의 촉매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

□ 스크린쿼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

-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미 FTA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영화계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
- 2004년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관객수 기준)은 59.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영화 관객수 및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만 명)

	한국영화		미국영화	
	관객수	시장점유율	관객수	시장점유율
2000	2,271	35.10%	4,191	64.90%
2001	4,481	50.10%	4,455	49.90%
2002	5,082	48.30%	5,431	51.70%
2003	6,391	53.49%	5,556	46.51%
2004	8,019	59.33%	5,498	40.67%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 실제 상영일수도 평균 의무일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

- 2004년 평균의무일수는 99.2일이며 한국영화 평균 상영일수는 170일 (54.9%)로, 의무일수를 평균 70.8일 초과

한국영화 의무일수와 상영일수 비교

		*	()	
2001	576	121.4	143.2(44.0%)	+21.8
2002	711	94.3	147.2(47.7%)	+52.9
2003	1,017	92.8	150.5(47.6%)	+57.7
2004	1,201	99.2	170.0(54.9%)	+70.8

* 의무상영일수(146일)에서 통합전산망 가입시 감경(20일, 2002년부터 적용), 문화부 장관 감경(20일), 시도지사 감경(20일),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시 감경 등의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단, 총 감경 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 안정성 검증 등 국민 건강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즉시 미 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 구제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무역구제 조치는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므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적극 대처

-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 부문별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 필요
 - 민감품목의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이행기간 부여 등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법률, 의료, 교육 등 취약한 국내 서비스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한미 FTA를 우리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

- 중일에 앞서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선점자 우위 확보